

시편

시편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트힐림(Tehillim)이며 찬양들이라는 뜻이다. 한글성경의 시편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연유하였다. 시편은 70 인역에 프살모이(Psalmoi)라 되어 있는데, 이는 프살모스(Psalmos)의 복수형이며, 수금을 치며 부르는 노래들이라는 뜻이다. 영어 이름은 이를 음역하여 Psalms 로 되었다.

시편에 수록된 150 개의 시는 5 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한다. 각 권은 송영과 아멘으로 끝맺음 되어 있는데 5 권은 예외이다. 5 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50 편은 그 자체가 확대된 송영으로 간주되고 있다.

제 1 권: 1 – 41 편

제 2 권: 42 – 72 편

제 3 권: 73 – 89 편

제 4 권: 90 – 106 편

제 5 권: 107 – 150 편

학자들은 시편을 여러 방법으로 분류해왔는데 그 유형은 1. 저자, 2. 주제와 내용, 3. 악기나 멜로디 등이다. 저자, 악기나 멜로디에 의한 분류는 표제에 밝혀져 있어서 확실하지만 150 편을 다 분류할 수는 없다. 주제와 내용에 따른 분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다양하며 복잡하여, 그 자체가 논문의 주제가 될 정도이다. 보편적으로 시편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교훈, 메시야, 참회와 통회, 기도와 찬양, 감사, 비탄, 자연계에서 창조주의 재 발견, 민족적, 순례, 탄원 등이다. 저자는 150 편 중 100 편이 알려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단 아삽이나 고라 자손의 시 중에는 그 가문에서 보존 또는 전해 내려오던 시들도 포함되어 있다.

- 1) 다윗 총 73 편: 3-9, 11-32, 34-41, 51-65, 68-70, 86, 101, 103, 108-110, 122, 124, 131, 133, 138-145
- 2) 아삽 총 12 편: 50, 73-83
- 3) 고라 자손 총 11 편: 42, 44-49, 84, 85, 87-88
- 4) 솔로몬 총 2 편: 72, 127
- 5) 에단 총 1 편: 89
- 6) 모세: 총 1 편: 90

시편 부제에 언급된 용어 및 인명과 본 노트에 소개된 용어의 뜻:

- 1) 고라의 자손 –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드고아 들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찬송했던 고라의 자손 (대하 20:19).
- 2) 깃딧 – 히브리어 깃딧은 명확히 알 수 없는 음악적 용어라고 이해한다.

3) 답관체 – 踏冠體(acrostic) 각 행의 첫 글자 또는 마지막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거나, 그들을 짜맞추면 하나의 단어가 되는 시의 형태. 시의 행 또는 연과 성경의 절 수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 답관체는 주제에 대한 설명보다는 상이한 단어나 화려한 표현에 중점이 주어져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시 9, 10, 25, 34, 37, 111, 112, 119 및 145 편이 답관체에 속한다. 답관체 시편 설명의 이해를 돋기 위해 22 자의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을 소개한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만 아래 도표는 알파벳 순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록하였다. (도표 credit: Wikipedia)

| Alef | Bet | Gimel | Dalet | He | Waw/Vav | Zayin | Chet | Tet | Yod | Kaf |
|-------|-----|-------|--------|------|---------|-------|------|------|------|-----|
| א | ב | ג | ד | ה | ו | ז | ח | ט | י | כ |
| Lamed | Mem | Nun | Samech | Ayin | Pay | Tsade | Qof | Resh | Shin | Tav |
| ל | מ | נ | ס | ע | פ | צ | ק | ר | ש | ת |
| ם | ם | ם | ם | ם | ם | ם | ם | ם | ם | ם |

- 4) 마스길 – 교훈적이란 뜻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가 않다. 모두 13 편(32, 42, 44, 45, 52-55, 74, 78, 88, 89, 142)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교훈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문학적 또는 음악적 부호였다는 설명도 있다.
- 5) 마할랏 –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다. 질병이라는 뜻으로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분위기로 연주하라는 부호라는 해석과 악기의 이름이라는 해석이 있다.
- 6) 마할랏르안놋 – 마할랏에 '비참한'이라는 뜻의 '르안놋'이 추가되어 더 큰 고통 내지 그런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 7) 웃랍벤 – 히브리어 웃랍벤은 '아들의 죽음에 맞추어'라는 뜻인데 같은 제목의 노래 가락에 맞추어 부르는 시라고 이해한다.
- 8) 믹담 – 믹담(**מִקְדָּשׁ**)의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음악적 용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속죄시(贖罪詩), 황금시(黃金詩) 또는 금언시(金言詩)를 뜻한다는 소수의 해석도 있다. 시편 16 편, 56-60 편에 총 6 번 부제로 언급되고 있다.
- 9) 셀라 – 시편 150 편 중 39 편에 총 71 번 등장한다. 히브리 원어로 **:הֲלֹא**는 잠깐 쉰다는 뜻인데 시편에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확실치가 않다. 시편에 사용된 여러 경우를 분석하여 낭독이나 찬양 중간에 잠시 쉬거나 목소리를 높이라는 음악적 부호로 이해한다.
- 10) 소산님 – 백합화라는 뜻인데, 백합 모양의 악기 또는 노래 제목으로 추정된다.
- 11) 소산님에듯 - 수산에듯과 같은 뜻.
- 12) 수산에듯 – 언약의 백합회라는 뜻으로 백합 모양의 악기 또는 노래 제목으로 추정된다.
- 13) 스미닛 – 히브리어로 스미닛(Sheminith)이라 발음되는 **שְׁמִינִית**은 8 줄이 있는 현악기를 말한다.

- 14) 스올 –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즉 무덤이라는 뜻이며 영적으로는 고난의 형벌과 장소를 뜻한다. 사망, 지옥, 무덤, 음부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 15) 식가운 – 히브리어 식가운 (**נִירָא**)은 격정적으로 리듬이 바뀌는 음악을 뜻한다고 추정한다.
- 16) 아삽 – 다윗과 솔로몬 때 찬양 봉사자(대상 6:31-32, 39)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 앞에서 제금을 쳤다(대상 15:19, 16:5). 아삽이 저자로 되어 있는 대다수의 시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아삽 본인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아삽의 후손이 집필하였거나 문중에 전해 내려오던 시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 17) 아앨렛샤할 – 문자적으로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인데 같은 제목의 경쾌한 곡조의 음악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 18) 알다스헷 –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으로, 당시 다윗의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 19) 알라못 – 문자적으로 소녀를 뜻하며, 소프라노 또는 가성으로 부르라는 것, 또는 그런 음역(音域)을 갖고 있는 악기라고 해석한다.
- 20) 에단 – 아래의 에스라인 헤만 참조.
- 21) 에스라인 헤만 – 헤만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하던(대상 6:33, 요엘의 아들) 레위인과 솔로몬 시대에 지혜의 사람(왕상 4:31, 마흘의 아들) 이렇게 둘이 있다. 왕상 4:31에 에스라 사람이 언급되어 있지만 헤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에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인 헤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시편 부제에 언급되어 다윗 시대에 찬양하던 헤만으로 간주한다. 한 편으로 이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22) 여두둔 –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대 및 지휘자로 봉사하도록 아삽, 헤만, 여두둔 3 명과 그의 자손들을(대상 25:1) 등용하였다. 여두둔의 지휘로 그 자손들은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하였다(대상 25:3). 부제에 언급된 여두둔 형식 또는 법칙은 현악기를 반주로 동원한 방식을 가리킨 것이다.
- 23) 요낫 엘렘 르호김 – 문자적으로 '멀리 있는 참나무의 비둘기'라는 뜻이다. 이 표현은 시 56 편 부제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단 한 번 쓰였는데, 같은 제목의 노래 곡조에 맞추어 부르라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는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한 자신의 상황을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비둘기에 견준 것(시 55:6-7 참조)이라는 해석도 있다.
- 24) 희가운 – 시 9:16 끝에 나오는 희가운은 웅얼거리는 작은 소리를 뜻하는 히브리어이다. 시편에 19:14 과 92:1-3에 2 번 더 등장하는데, 19:14에서는 묵상으로, 92:1-3에서는 아예 생략되었다. 92:1-3의 경우 개역성경에는 '정숙한 소리'라고 되어 있었다. 9:16의 경우 본문에 왜 언급되었는지 그 의도가 불분명하고 의아스럽다.

시편은 단답형으로 노트하기에 적합치 않아, 유명구절들을 제외하고, 묵상하며 느낀 점들과 의문나는 구절들을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노트

1. 시 1 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교훈적인 내용이며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의롭기에 복받은 사람은 형통하지만 악인은 패망한다는 영적 원리를 시로 표현하였다.

2.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르지 않나? 악인들의 꾀 (시 1:1)
3.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지 않나? 죄인들의 길 (시 1:1)
4.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지 않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 (시 1:1)
5.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 하나? 여호와의 율법 (시 1:2)
6.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은 나무와 같은가? 시냇가 (시 1:3)
7.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은가? 겨 (시 1:4)
8. 시 2 편의 주제는 메시야로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1 절부터 4 절까지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야의 할렐루야 바로 전의 베이스 영창, 합창의 서창과 테너 영창의 가사로 사용되었다.
9.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누구를 대적하였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시 2:2)
10. 여호와는 군왕들에게 누구를 입맞춤하라고 하셨나? 그의(자신의) 아들(메시야 예수 그리스도) (시 2:10-12)
11. 시 3 편의 주제는 찬양과 기도이며 저자는 다윗이다. 부제에 나와 있듯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길에 지은 시로 어두운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찬양하고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5 절에 연유하여 아침기도라는 별명이 있다. 통상적으로 다윗이 도피 중 요단 강가에 이르러 잠시 쉴 때(삼하 17:21-22) 지은 것이라고 보는데, 갑람산에서(삼하 15:30) 지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12. 다윗은 여호와의 어떤 3 가지 면을 찬양하였나?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시 3:3) ⇒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수치심으로 머리를 가렸는데(삼하 15:30),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머리를 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찬양.
13. 시 4 편의 주제는 찬양과 기도이며 저자는 다윗이다. 그 형식은 인도자가 있고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부르게 되어 있다. 3 편에 이어서 지어진 것으로 보며 8 절에 연유하여 저녁기도의 시로 간주한다.
14. 다윗은 곤란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 주셨다고 하였나? 너그럽게 하셨다 (시 4:1) ⇒ 문자적으로 너그럽게 하셨다 함은 곤경이라는 테두리에 얹혀 음짝달싹할 수 없을 때 거동할 틈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다.
15. 시 5 편의 주제는 찬양과 기도이며 저자는 다윗이다. 그 형식은 인도자가 있고 관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부르게 되어 있다. 4 편에 이어서 지어진 것으로 보며 3 절에 연유하여 아침기도의 시로 간주한다.
16. 다윗은 주의 무엇에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나? 주의 풍성한 사랑 (시 5:7)
17. 시 6 편의 주제는 통화이며 저자는 다윗이다. 그 형식은 인도자가 있고 8 줄이 있는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게 되어 있다. 개역성경에 '스미닛'이라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에는 무슨 이유인지 '현악 여덟째 줄에'로 바뀌었다.
18. 다윗은 밤마다 탄식 속에 흘린 눈물로 어떻게 되었다고 하였나? 침상을 띠우고 요를 적셨다 (시 6:6) ⇒ 큰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려 침상이 떠버렸다는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다. 참고 NIV – flood, KJV – swim.

19. 시 7 편의 주제는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이며 저자는 다윗이다. 일부 학자들은 부제에 나오는 '베냐민인 구시'가 사울 왕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끝까지 사울 왕에 대해 좋은 감정을 지켰던(삼하 1:17-27) 다윗이 14 절 – 17 절까지와 같은 거친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주류를 이룬다.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족속의 구시라는 사람은 다윗을 대적하는데 적극적이었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여 그 말을 회상하며 지은 시이다.
20. 다윗은 자신의 방패가 어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 7:10)
21. 시 8 편의 주제는 우주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것이며 저자는 다윗이다. 그 형식은 인도자가 있고 깃idot에 맞추어 부르게 되어 있다.
22. 다윗은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고백했나? 하나님보다 (시 8:5) ⇒ 개역성경에 천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역개정에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는 히브리어 므엘로힘(**מַלְאָךְ**)이 경우에 따라 이 두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NIV KJV 공히 angels로 되어 있다. 어쨌든 인간은 여타 동물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23. 시 9 편의 주제는 감사이며 저자는 다윗이다. 그 형식은 인도자가 있고 웃랩벤에 맞추어 부르게 되어 있다. 9 편은 구조로 볼 때 답관체에 속한다. 9 편의 경우 각 연의(성경의 절과 다름에 유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 – 각 연에 해당하는 1 절, 3 절, 5 절이 Alef, Bet, Gimel 로, 9 절, 11 절, 13 절, 15 절, 17 절이 Waw, Zayin, Chet, Tet, Yod 로 각각 시작한다.
24. 다윗은 여호와가 무엇으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고백하였나? 공의 (시 9:8)
25. 다윗은 어디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말했나? 딸 시온의 문 (시 9:14) ⇒ 즉 예루살렘
26. 악인은 무엇에 스스로 얹혔나?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 (시 9:16)
27. 시 10 편의 주제는 비탄이며 저자와 형식은 알려져 있지 않다. 9 편과 같은 답관체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9 편에 이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연결되어 구성상 한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실제로 70 인역에는 한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 절 Lamed 로, 12 절, 14 절, 15 절, 17 절이 각각 Qof, Resh, Shin, Tav 로 시작한다.
28. 여호와는 누구의 소원을 들으셨나? 겸손한 자 (시 10:17)
29. 시 11 편에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은 후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 삼상 23:15-18 참조.
30. 시 12 편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남는다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다.
31. 여호와 말씀의 순결함은 무엇과 같다고 하였나? 흙 도가니에서 일곱 번 단련한 은 (시 12:6)
32. 시 13 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 시이다. 원수로부터 매일같이 받는 핍박 속에서 여호와께 항의(1 절, 2 절) 하지만, 곧 기도로 이어지고(3 절, 4 절), 종래에 가서는 찬양으로(5 절, 6 절) 끝을 맺는다.
33. 시 14 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어리석게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의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다. 내용상 시 53 편과 같다.

34.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였나? 시온 (시 14:7) ⇒ 시온은 요새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의 이름이다. 다윗은 이곳에 성을 쌓고 다윗성이라 하였다. 후에 예루살렘의 시적 명칭이 되었으며, 이스라엘과 구원의 처소를 상징하는 여러 뜻으로 사용되었다.
35. 시 15 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한 모습을 찬양한 다윗의 시이다. 탈무드는 모세 5 경에 나오는 613 개의 율법이 이 시 한편에 모두 농축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36. 시 16 편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다. 마지막 절인 11 절을 메시야에 대한 예언으로 간주한다.
37. 시 17 편은 악인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다윗의 기도문이다.
38. 다윗은 자신을 무엇과 같이 지켜 주시기 원했나? 눈동자 (시 17:8)
39. 다윗은 자신을 어디에 감추어 주시기 원했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시 17:8)
40. 시 18 편은, 부제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시이다. 다윗의 승전가인 삼하 22 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41.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무엇으로 비교하였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시 18:2) ⇒ 여기서 뿔이라 함은 동물의 뿔과 같이 공격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점(頂點)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42. 시 19 편은 우주의 운행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율법의 완전함을 찬양한 다윗의 시이다.
43.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하다고 기록되어 있나?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시 19:7)
44. 여호와의 증거는 어떠하다고 기록되어 있나?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시 19:7)
45. 여호와의 교훈은 어떠하다고 기록되어 있나?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시 19:8)
46. 여호와의 계명은 어떠하다고 기록되어 있나?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시 19:8)
47.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떠하다고 기록되어 있나?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시 19:9)
48. 여호와의 법은 어떠하다고 기록되어 있나? 진실하여 다 의롭다 (시 19:9)
49. 시 20 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로 올린 시이다. 암몬과 전쟁할 때(삼하 10) 쓴 시로 알려져 있다.
50. 전장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이름 (시 20:7) ⇒ 한글로 사랑한다고 번역된 부분이 NIV 에는 'trust', KJV 에는 'remember'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זֶקְרָעַ는 기억하다, 표시하다, 언급하다 등의 뜻이 있다.
51. 시 20 편에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원하였는데, 21 편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찬양을 담고 있다.
52. 시 22 편은 원수들의 팽박으로 고통 당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비탄의 시이다. 고난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의 수난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메시아 예언 시로 알려져 있다.
22 편과 신약 복음서의 평행 구절:
 - 1) 1 절 – 마 27:46, 막 15:34
 - 2) 7 절 – 막 15:29

- 3) 18 절 – 마 27:35, 뉴 23:34, 요 19:23-24
53. 시 23 편은 목자의 시라는 별명이 붙은 아마도 시편의 모든 시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애독되는 시일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양이 목자를 따르듯, 여호와를 쫓음으로 부족함 없는 안위와 보호를 받는다는 다윗의 찬양이다.
54. 주께서는 무엇으로 나를 안위하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시 23:4) ⇒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길을 잘못 들은 양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길 잃은 양을 찾는 도구이며, 양떼를 공격하는 짐승을 퇴치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55. 시 24 편은 삼하 6 장과 대상 15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긴 일을 기념하여 다윗이 지은 찬양시로, 하나님의 궤가 성문을 통과할 때 불렸다.
56. 무엇에게 머리를 들라고 하였나? 문들과 영원한 문들 (시 24:7) ⇒ 먼저 언급된 문은 다윗 성의 성문을, 높이를 포함해서, 활짝 열라는 의미이다. 두번째 언급된 영원한 문들은 다윗 성, 곧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궤가 영원히 함께 할 장소임을 암시하고 있다.
57. 시 25 편은 원수들의 팝박은(2 절)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은(11 절) 것임을 자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한(11 절) 다윗의 시이다. 다윗은 22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까지도 기도한다. 25 편은 답관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waw'와 'qof'를 제외한 모든 자음이, 몇 개의 예외를 제하고, 순서대로 등장한다.
58. 시 26 편은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6 절)을 호소하며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하는(9 절-11 절) 시이다.
59. 시 27 편은 고난 속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뢰(1 절-6 절)와 그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는(7 절-14 절) 2 부분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시이다. ⇒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단순히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평범한 해석과, 상세한 상황 비교(2 절-3 절 원수들의 추격, 4 절 여호와의 집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 10 절 부모와 헤어졌고, 12 절 위증자의 모략) 끝에, 도피 중인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사울 왕에게 밀고한 에돔 사람 도액에 의해 제사장 85 명이 학살당한 사건(삼상 22 장)이라는 해석이 있다.
60.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시 27:4)
61. 시 28 편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같은 고난을 받는(3 절) 부당함을 호소하며 궁극적으로 의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께 기뻐 찬양 드리는(6-9 절) 다윗의 시이다.
62. 시 29 편은 우주와 자연계에서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다윗의 시이다.
63. 29 편에 7 번 반복적으로 등장한 문구는? 여호와의 소리 (시 29:3-5, 7-9) ⇒ 여호와의 소리라는 구절이 반복되며 그에 뒤따르는 묘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 3 절의 '물위에 있도다'가 9 절에 와서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폭풍의 강도가 점점 더 세어졌다가 마침내 그치며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좌정하시어(10 절)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고백으로(11 절) 끝을 맺고 있다.
64. 참고로 29:9 의 '암사슴'은 NIV 에 'oaks', KJV 에 'hinds'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 **אֲילוֹת** 는 일반적으로 암사슴, 특수하게 상수리나무의 복수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9 절 두번째

- 연에 삼림이 언급되어 상수리나무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성경 다른 구절에서 상수리나무의 복수형은 다른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암사슴이 맞다는 두가지 해석이 있다.
65. 시 30 편은 영적 쇠락 혹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고침(2 절)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감사 찬양한 시이다. 부제로 낙성가라 되어있는데 그 연유는 확실치가 않다.
66. 다윗은 여호와의 무엇은 잠깐이고 무엇은 평생이라고 고백했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 30:5)
67. 시 31 편은 고난 가운데 탄식하여도(10 절) 여호와 만을 의지하며(14 절) 구원을 간구한 다윗의 시이다.
68. 다윗은 자신의 기력이 무엇 때문에 약해진다고 고백하였나? 죄악 (시 31:10)
69. 시 32 편은 다윗이 뱃세바를 범한 중대한 범죄 후에 지은 참회의 시이다.
70. 다윗은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고백했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시 32:5)
71. 시 33 편은 창조주 여호와(6 절)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은 복이 있으리라는(12 절) 찬양 시이다. 나라와 민족이 언급되어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본다.
72. 시 34 편은 부제에 있는 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그런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 주신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시이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이며 당시 아비멜렉은 아기스였다. 삼상 21:10-22:2 참조. ⇒ 34 편은 답관체로 각 절이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로 시작한다. 예외는 6 절로 'waw'가 빠지고 그 다음 자로 시작한다. 마지막 22 절은 자음 순서와 관계없는 여분이다.
73. 시 35 편은 친구였던 자들이 자신의 은혜를 저버리고(13-14 절) 오히려 대적하는(12, 15-16 절) 상황에 다윗이 그들의 심판을 탄원하는(23-26 절) 시이다.
74. 시 36 편은 악인들이 추악한 모습(1-4 절)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입은 의인들의 아름다운 모습(5-9 절),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10 절),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이른다는(11-12 절) 3 가지 주제를 다룬 다윗의 지혜 시이다.
75. 시 37 편은 다윗의 잠언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이고 의인의 어려움 또한 잠시이며 곧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지혜와 교훈의 시이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25 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고한다. ⇒ 37 편은 답관체로 'ayin'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4 연에 한 자씩 순서대로 사용되었다.
76. 시 38 편은 다윗이 뱃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참회의 시이다. 다윗은 주의 노하심(1-2 절)으로 몸과 마음이 고통(3-8 절) 속에 있음을 호소하고, 그 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받는 고난(9-12 절)과 그를 인내하는(13-14 절)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고백하며, 원수들이 자신의 고난으로 기뻐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다(15-22 절).
77. 시 39 편은 인생의 허무함(4-5 절) 속에서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는 다윗의 참회 애가(哀歌)이다. 4-5 절 및 13 절로 미루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은 때에 지은 시로 추정된다. 13 절에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때문에 다윗이 무슨 중병에 걸렸나 하고 찾아보니 NIV 에 'enjoy life again', KJV 에 'recover strength'로 되어 있다. 13 절 '떠나 없어지기 전'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죽음이 멀지

않은 것이 확실한데, 4-5 절에서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이 짧은 것이라고 고백한 그가 건강을 회복해서 더 살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단지 품위 있는 죽음을 맞게 해 달라는 청원으로 이해된다.

78. 시 40 편은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1-10 절) 현재에 당면한 어려움에서의 구원을 간구하는(11-17 절) 다윗의 감사와 탄원의 시이다. ⇒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섬멸하고(삼상 30), 길보아에서 블레셋에 사울이 패전한(삼상 31) 후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삼하 2) 새로운 분쟁의 국면에 들어선 시기라고 해석한다.
79. 시 41 편은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3 절) 지은 시로, 병고 가운데 있을 때 격은 원수들의 모함(5-8 절)과 친구들의 배반(9 절)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찬양(10-13 절)하고 있다. ⇒ 9 절에 언급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표현은 말이 주인을 뒷발질로 차는 형국을 묘사하였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 구절을 인용(요 13:18) 함으로 예언하셨다.
80. 시 42 편은 고라의 자손(대하 20:19)이 지은 교훈적인 시이다. ⇒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2 절) 및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4 절) 등으로 미루어 저자는 현재 성전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된다.
81. 시 42 편 저자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무엇에 비유하였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시 42:1)
82. 시 43 편은 원수의 억압으로 도망 다니며(2 절) 주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돌아가기를(3-4 절) 간구하는 시이다. ⇒ 내용의 연관성으로, 특히 후렴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가 42:5, 42:11 및 43:5에 반복되어 있고, 시편 제 2 권 중에 부제가 없는 유일한 시라는 점등을 들어서, 42 편과 하나의 시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3. 시 44 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선한 일들을 회상하며(1-8 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고난을 아뢰고(9-16 절),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으니(17-22 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달라는(23-26 절) 탄원의 시이다. ⇒ 고라의 자손이 지었고 부제가 42 편과 같다. 저작연대는 흩어지고 헐값에 팔렸다는 11-12 절에 근거해서 바빌론 포로시절이라고 일반적으로 본다. 하지만 군대가 아직 존재해 있고(9 절),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17-18 절) 부분에 역점을 두어 통일왕국 시대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84. 시 45 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고라의 자손이 지은 축가이다. 45 편은 1 절 서론으로 시작해서 왕(2-8 절)과 왕후(9-15 절)에 대한 칭송이 있고 축복(16-17 절)으로 끝을 맺고 있다. ⇒ 6-7 절은 히 1:8-9에 예수님으로 해석하여 인용되었다. 2 절 또한 메시야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하여 왕을 예수, 왕후를 이스라엘로 해석하여 45 편을 메시야의 예시라고 보기도 한다. 9 절의 '왕들의 딸'은 결혼식에 참석한 여러 왕들의 딸들을, 10 절과 13 절의 딸은 왕후를 가리킨다.
85. 시 46 편은 열방이 격변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우리들은 안전하다는 고라의 자손이 지은 찬양시이다. ⇒ 46 편은 3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은 후렴에 해당하는 표현과

'셀라'로 마쳐진다. 서론 1 절, 자연의 어지러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평온을 찾고(2-5 절), 나라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진정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6-7 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바로잡으려 오실 때 나타날 일시적인 고난과 궁극적 평강(8-9 절)을, 그리고 결론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중 교황청의 탄압이 극심할 때 자주 낭독했던 시로 알려져 있다. 루터는 1 절에서 영감을 받아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사 작곡하였다.

86. 시 47 편은 만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께 드리는 고라의 자손이 지은 찬양시이다. ⇒ 46, 47, 48 편은 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점으로 일맥상통한다. 47 편은 46:10 을 더 전개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유대교 회당에서 새해 첫 예배 때 양각나팔을 불기 전에 47 편을 부른다. 이때 2 개의 성가대가 2 절씩 교대로 부르고 9 절은 같이 부른다.
87. 시 48 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 성 즉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찬양하여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이다. ⇒ 시온 성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상적인 세상을 의미한다.
88. 시 49 편은 부유한 자라도 자신과 자신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종래 죽음을 맞이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스올(용어 설명 14 번 참조)로부터 건져주시어 영생을 누린다는 고라의 자손이 지은 교훈시이다.
89. 시 50 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장면(1-6 절), 의식적인 예배에 대한 경고(7-15 절), 악인에 대한 정죄(16-21 절) 및 결론(22-23 절)으로 구성된 아삽이 지은 교훈시이다. ⇒ 참고 성경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90. 시 51 편은 부제에 나온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후에(삼하 11:2-4, 12:1-15) 지은 통회의 시이다. 시편 중 가장 애달픈 시로 알려져 있다.
91. 다윗은 무엇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 달라고 하였나? 우슬초 (시 51:7) ⇒ 우슬초는 박하과의 향이 좋은 약초인에 꽃줄기에 털이 많아 물을 많이 머금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결예식 때 물이나 피를 적셔 뿌리기에 적당했다. 우슬초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장면이다(출 12:21-22). 이후로 우슬초는 나병환자의 완치를 확인하는 8 일간의 정결예식에 사용되었고(레 14: 4, 6), 집안에 발생한 나병을 일으킬 곰팡이 제거 후의 정결예식에 사용되었으며(레 14:49, 51, 52), 부정을 씻는 물을(민 19:9) 만들기 위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민 19:6) 재를 만들 때 사용되었다. 다윗이 자신을 우슬초로 씻어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나병환자와 다름없다는 뜻이다.
92. 다윗은 내 속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내 안의 무엇을 새롭게 해달라고 탄원하였나? 내속의 정한 마음, 내 안의 정직한 영 (시 51:10)
93.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고백했나? 상한 심령 (시 51:17) ⇒ '상한 심령'은 같은 구절 하반부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94. 시 52 편은 밀고나 하는 간사하고 악한 혀와 재물을 의지하여 악행을 일삼는 악인이 당할 심판을

- 탄원하여 다윗이 지은 시이다. ⇒ 노트 59 번 하반부 참조.
95. 시 53 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가증한 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다윗의 비탄시이다. ⇒ 53 편은 14 편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96. 시 54 편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구원을 호소하여 지은 비탄시이다. ⇒ 시제(時制)에 주의하여 보면 1-3 절에서 구원을 간구하였고, 4-6 절에서 구원을 확신하였으며, 7 절에는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배경은, 부제에 나와있는 대로, 사울에 쫓긴 다윗이 십 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을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한(삼상 23:15, 19-20) 사건이다.
 97. 시 55 편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시이다. ⇒ 12 절의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와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라는 표현은 불특정의 원수나 미워하는 자로부터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 것이다. 13 절에 그는 동료요 친구라고 묘사되어 있어, 학자들은 그 인물이 다윗의 모사였으나(삼하 15:12)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아히도벨(삼하 15:31)이라 생각한다.
 98. 시 56 편은 곤경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한 시이다. ⇒ 이 시의 배경은 부제에 나온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하였다가(삼상 21-31 장) 가드에서 잡힌 때이다. 성경에 다윗과 가드가 함께 등장한 것은: <1>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삼사 17 장), <2>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때(삼상 21 장), <3> 사울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두번째 도망간 때(삼상 27 장), <4>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가드를 점령했을 때(대상 18 장) 이렇게 4 번이다. 그 중 딱히 다윗이 불잡혔다는 기록은 없지만 정황상으로 <2> 가드 왕 아기스에게 첫번째 도망했을 때(삼상 21:10-15)임이 분명하다. 삼상 21:10 에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그를 두려워하여 미친 체한(삼상 21:12-13) 점과 아기스가 신하에게 어찌 이런 미치광이를 내게 데려왔느냐(삼상 21:14)라고 한 것을 볼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다.
 99. 시 57 편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1-3 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한(4-6 절) 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7 절) 고백하고 찬양한(8-11 절) 시이다. ⇒ 이 시는 56 편과 내용과 구성이 비슷하나 그 분위기가 56 편보다 덜 암울하다. 이 시의 배경은 부제에 나와있는 대로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인데 아둘람 굴(삼상 22:1)인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삼상 24:1)인지는 확실치가 않다. 그러나 57 편의 분위기가 56 편보다 고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엔게디 광야 굴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공감이 간다.
 100. 시 58 편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청원하는 다윗의 비탄시이다. ⇒ 이 땅의 재판관인 통치자의 불의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
 101. 시 59 편은 위기로부터 자신과 이스라엘의 구원(1-10 절) 및 악인들의 진멸을 탄원하며(11-15 절), 그에 따른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이(16-17 절) 함께 담긴 다윗의 시이다. ⇒ 이 시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낸 사건이다(삼상 19:11-12). 다윗은 원수들을 짚주린 개에 비유하였다(6, 14 절). 이 비유는, 그들이(개 곧 사울의 전령들) 밤새 돌아다녀도 먹을 것(다윗)을 찾지 못했다는 15 절과 그 아침에 주는 요새이시며 피난처라고 찬양하는 다윗을 그린 16-17 절의 대칭적인 구절에, 더욱 눈에 띈다.

102. 시 60 편은 아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기원한 다윗의 시이다. ⇒ 이 시의 배경은 부제에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에'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딱 들어맞는 기록이 없다. 우선 소바 왕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 이만 이천명을 다윗이 죽인 기록이 대상 18:5에 있고, 에돔 사람 만 팔천명을 소금 골짜기에서 죽인 기록이 대상 18:12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은 암몬 자손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마아가와 소바로부터의 용병으로 구성된 연합군으로 다윗을 공격했을 때(대상 19:6-7) 요압과 아비새가 나아가 진을 치니(대상 19:8-12) 아람 사람과 암몬 자손들이 도망하였고(대상 19:14-15), 요단 강 건너편에 연합군 군대사령관 소박이 진을 치고 대적하니(대상 19:16), 다윗이 그들을 무찌르고 보병 사만명을 죽였다고 대상 19:17-18에 기록되어 있다 - 이 부분은 삼하 10 장과 평행. 장소, 언급된 인물, 사살된 적군의 숫자 등 정확히 일치되는 부분이 없으니 대상 18 장과 19 장에 기록된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회고하며 지은 시가 아닌가 싶다.
103. 다윗은 모압을 무엇에 비유했나? 목욕통 (시 60:8) ⇒ 이 표현은 '대야'가 더 적절하다. 그 중에도 발 씻는 대야로 해석하며 극도의 모욕적인 표현이다.
104. 다윗은 에돔에 무엇을 던지리라고 했나? 신발 (시 60:8) ⇒ 이 표현을 롯 4:7과 비교하여 에돔 땅의 소유를 선포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모양인데 본인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롯기의 경우 땅의 소유권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 짓는 일종의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주인의 신을 닦는 일은 종이 할 일이었기에 에돔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에 공감이 간다. 중동에서 신발은 불결한 물건의 상징으로 신발을 던지는 것은 큰 모욕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8년 12월 14일에 당시 전쟁 중이던 이라크를 방문하여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라크 기자가 구두를 부시에게 던진 사건이 있었다.
105. 시 61 편은 다윗이 약해졌을 때 주의 장막에 머물며 얻는 기쁨을 생각하고 왕권의 회복과 장수를 간구한 시이다.
106. 시 62 편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만을 의지하라는 다윗의 교훈시이다.
107.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무엇이라고 3 번 비유했느냐? 반석, 구원, 요새 (시 62:2, 6) ⇒ 이 고백은 2 절과 6 절에 2 번 반복되는데,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다윗의 심령 역시 1 절과 5 절에 2 번 반복되어 있다. 이는 후렴과 같은 성격인데 통상적인 후렴이 주제 다음에 나오는데 비해 이 시에서는 먼저 나오며 그 자체가 주제이다.
108. 시 63 편은 다윗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1-4 절),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기쁨(5-8 절) 및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9-11 절)에 감사한 시이다.
109. 시 64 편은 원수로부터의 보호를 간구하고(1 절), 원수들의 책략(2-6 절)을 아뢰며 그들의 멸망을 확신하는(7-10 절) 다윗의 시이다.
110. 시 65 편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복주시는 하나님(1-4 절), 그러기 위해서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5-8 절), 그 결과로 거둔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하고 찬양한 다윗의 시이다.
111. 시 66 편은 민족적으로(1-12 절) 또한 개인적으로(13-20 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 시이다. ⇒ 1-12 절의 주어는 복수인 '우리'이고 13-20 절의 주어는 단수인 '나'인 점에 유의하여 전반부는 합창 후반부는 독창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112. 시 67 편은 땅 위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1-4 절) 그를 찬송하는 민족들에게 땅의 소산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이다. ⇒ 3 절과 5 절이 후렴으로 반복되고 있다. 학자들은 아론의 축복(민 6:24-26)이 시 67:1에 녹아져 있음에 본 시편이 아론의 축복에 대한 화답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113. 시 68 편은 모세의 출애굽으로부터 다윗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기술하고 찬양한 다윗의 시이다. ⇒ 이 시는 매우 복잡하여 자세한 해석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약 다른 책들의 구절과 비교 대조하고 또 난해한 히브리어의 여러가지 뜻을 정리하며 풀이하는 식의 주석 논문이 400 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해와 묵상을 돋기 위하여 이 시편의 구성을 소개한다. 1-2 절: 여호와의 궤가 광야에서 떠날 때 모세가 한 말(민 10:35)이 1 절에 인용되며 행렬 시작의 선포. 3-6 절: 백성들 가운데 환희와 영광의 찬양이 충만하며, 그런 기쁨의 실제적인 이유들의 열거. 7-10 절: 광야의 영광스러운 행군을 찬양. 11-14 절: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경축. 15-19: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시온) 산에 가까이 도착하여, 시내 산을 회고하며, 환희의 찬송이 터져 나오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즉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림. 20-23 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신 백성들의 안전과 원수들의 파멸을 찬양. 24-27 절: 성소로의 행차에 대한 설명. 28-31 절: 왕국의 확장. 32-35 절: 하나님께 찬양.
114. 시 69 편은 다윗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원수들을 저주한 비탄시이다. ⇒ 시 69 편은 신약에 인용된 구절이 많이 있다; 4 절 > 요 15:25, 9 절 > 요 2:17/롬 15:3, 22-23 절 > 롬 11:9-10, 25 절 > 행 1:20. 또한 메시야적 예언으로 신약에서 성취된 부분도 있다; 21 절 > 마 27:34, 48, 막 15:23, 요 19:29-30.
115. 시 70 편은 다윗이 깊은 고노에 빠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시이다. ⇒ 시 40:13-17과 그 내용이 거의 같다.
116. 시 71 편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한(6 절) 시인은 늙은 때에(9, 18 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며 이를 확신하여 찬양을 올린 시이다. ⇒ 20 절에 미래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 있다.
117. 시 72 편은 이상적인 왕의 품성과 그에 따른 이상적인 왕국의 모습을 노래한 솔로몬의 메시야 시이다. ⇒ 메시야 예수의 품성과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국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한다. 20 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2 권의 끝을 표시하기 위해서 더했다는 주장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임종을 지키며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한 후 그렇게 썼다는 해석도 있다.
118. 시 73 편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인의 혐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의아함을 기술하고(2-14 절),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15-20 절) 후에, 의아해했던 자신을 돌아보고(21-22 절) 오직 하나님 만을 의지한다는(23-28 절) 아삽의 교훈시이다.
119. 시 74 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난 특히 성전 파괴(4-8 절)를 목격한 시인은 대적들의

만행을 나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한 시이다. ⇒ 74 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당한 때로(왕하 24-25 장) 추정된다. 따라서 아삽 자신이 저자가 될 수는 없고 그의 후손이 쓴 시로 추종된다. 14 절에 언급된 리워야단은 개역성경에 '큰 악어'라고 되어 있었다가 개역개정에 원어로 바뀌었다. 리워야단으로 표기된 히브리어 :*לְוִיּוֹן*:는 어느 특정 동물이라기 보다는 큰 뱀, 용, 공룡, 또는 악어와 같은 용트림을 치는 큰 동물을 묘사한다.

120. 시 75 편은 악인들의 위협에 처한 이스라엘이 오직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한 아삽의 시이다. ⇒ 4, 5, 10 절에 언급된 뿔은 교만함과 힘을 상징.
121. 시 76 편은 예루살렘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는 아삽의 시이다. ⇒ 2 절에 나오는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며 예루살렘과 동의어 특히 시적 표현으로 사용된다.
122. 시 77 편은 큰 환난으로 슬픔에 빠진 시인의 개인적인 한탄으로 시작하여(1-3 절),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영혼의 갈등(4-9 절),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10-15 절),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고백한(16-20 절) 아삽의 시이다.
123. 시 78 편은 애굽에서부터 다윗 왕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겪었던 심판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촉구한 교훈시이다. 구성은 1-8 절: 이 시의 목적을 서술한 서두, 9-41 절: 광야생활을 도우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42-52 절: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에 대한 회상, 53 절: 약속의 땅의 이야기로 가기 전에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상기, 54-66 절: 약속의 땅에서 계속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언약궤를 빼앗기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들의 회상, 67-72 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를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 옮기시고 다윗을 택하시어 왕으로 삼으심.
124. 시 79 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고난 특히 주의 성도들의 살육(2-3 절)을 목격한 시인은 대적들의 만행을 나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한 애가이다. ⇒ 74 편의 짹으로 이해되고 있다. 74 편은 성전파괴에 중점을 둔 반면 79 편은 백성들의 죽임당함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125. 시 80 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식되어 잘 자라던 포도나무에 비유한(8-11 절) 아름다운 시이다. 그러던 포도나무가 원수들에 의해 해침을 받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간구한 이 시는 3, 7, 14, 19 절에 시인의 마음이 반복 증폭되어 있다. ⇒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을 복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한(왕하 17:1-6) 사건으로 보는데, 다윗 시대의 아삽이 지었다면 예언적 시가 된다. 따라서 아삽의 후손이 지었거나 소장하고 있던 시로 이해한다.
126. 시 81 편은 국가적 명절을 맞아 백성들을 축제의 예배로 초대하고,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태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을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찬양의 시이다. ⇒ 3 절에 언급된 명절이 유월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두 해석이 있다. 7 절에 언급된 므리바 물가는 출 17:5-7 참조. 15 절은 '그들'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그 뜻에 큰 차이가 있다. 14 절로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되고, 15 절만 보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자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이', 후자로 해석하면

'그들의 정죄'라는 뜻이 된다. 참고 영어성경 KJV – their time should have endured for ever, NIV – their punishment would last forever.

127. 시 82 편은 세상(이스라엘)을 불공평하게 심판하는 불의의 재판관들을 결국에 가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아삽의 교훈의 시이다. ⇒ 1 절과 6 절에 '신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재판하실 때 집행을 위임받은 '신성한 재판관들'이라는 뜻이다. 6 절에는 그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요 10:34-35 참조.
128. 시 83 편은 주변의 여러 족속들이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국가의 존속을 위협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패망을 간구한 아삽의 저주의 시이다. ⇒ 많은 대적들의 이름이 6-8 절까지 언급되어 이 시의 배경이 어느 한 사건에 있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6-7 절에 언급된 모압, 암몬, 에돔(마온) 연합군에 여호사밧 때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한다 (대하 20 장 참조).
129. 시 84 편은 여호와의 궁정 즉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1-4 절),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자들의 축복(5-8 절), 그리고 성전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9-11 절)을 다시 한번 강조한 성전을 사모하는 시이다. ⇒ 이 시는 시편 중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장 감미롭게 묘사한 시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저자가 다윗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9 절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3 인칭이지만, 저자인 다윗이라고 역설한다.
130.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나? 시온의 대로 (시 84:5) ⇒ 한글 뜻대로 보면 성전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뜻한다. 이 구절은 순례를 가기로 작정하고 준비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뜻이다. 참조 NIV – set on pilgrimage, KJV – ways of them.
131.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낫다고 하였나? 천 날 (시 84:10)
132.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하였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시 84:10)
133. 시 85 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생활에서 귀환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하고(1-4 절), 완전한 구원을 위한 기도(5-7 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8 절),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한 고라 자손의 찬양시이다. ⇒ 이 시의 배경이 포로 귀환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다. 10-13 절은 시편에서 가장 뛰어난 의인화된 표현으로 꼽힌다.
134. 인애는 무엇과 같이 만난다고 하였나? 진리 (시 85:10)
135. 의와 무엇이 입을 맞춘다고 하였나? 화평 (시 85:10)
136. 진리는 어디에서 솟아난다고 하였나? 땅 (시 85:11)
137. 의는 어디에서 굽어본다고 하였나? 하늘 (시 85:11)
138. 무엇이 주의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 하였나? 의 (시 85:13)
139. 시 86 편은 환난 속에서 주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찬양한 다윗의 기도이다. 86 편은 기도할 이유(5 절)와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근거(15 절)를 제시하고 있다. 13 절에 언급된 스올은 용어 설명 14 번 참조.
140. 시 87 편은 시온 성 즉 예루살렘을 찬양한 고라의 자손의 시이다. ⇒ 4 절에 언급된 라합은 애굽의 시적 표현(사 30:7 참조)이며 구스는 이디오피아이다. 애굽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적대국들이다. 4 절 끝부분에 언급된 '거기서'가 어디인가 하는 논쟁이 있다. 우선

앞절에서 언급된 시온이라는 해석은 4 절에 나열된 대적들도 개종의 대상이고 결국 5 절에 나오는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시온에서 났다고 말할 것이며, 따라서 87 편의 시온은 하나님의 우주적 왕국의 수도라는 설명이다. 다른 해석은 대적들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자신의 출생지에서 났다고 말한다고 단순하게 보는 것인데 문맥으로 보아 더 이치가 있다. 이들은 6 절에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어디에서 났는지 가려질 것이다. 4 절의 '거기서' 영어성경 참조 NIV – born in Zion, KJV – born there.

141. 시 88 편은 육체적 또는 영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빠진 시인의 한탄(1-9 절)과 구원의 은혜를 여호와께 간구(10-18 절)하는 고라 자손의 비탄시이다.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시편에서 가장 낙담하여 비통한 시로 알려져 있다.
142. 시 89 편은 다윗의 왕위가 위태해졌을 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언약(삼하 7:16)을 상기하며 회복을 간구한 예단의 시이다. 89 편의 구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언약을 언급한 1-37 절과,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푸념한 38-45 절, 약속의 성취와 회복을 탄원한 46-51 절, 그리고 2 중 아멘으로 끝을 맺은 송영으로 되어 있다. ⇒ 10 절에 언급된 라합에 대해서는 노트 140 번 참조. 19 절의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는 삼하 7:4-17 에 기록된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30-31 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음(왕상 11:1-8)을 상기시킨다.
143. 시 90 편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을 더욱더 신뢰함을 고백한 모세의 기도가 담긴 교훈시이다. 시편에 실린 모세의 유일한 시로 소박한 문체로 인간의 유한하고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엄을 대조하여 가장 잘 묘사한 시로 알려져 있다.
144. 모세가 본 인간의 연수는? 칠십, 강건하면 팔십 (시 90:10)
145. 모세가 본 인간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시 90:10)
146. 시 91 편은 환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보호와 구원을 받는다는 지혜시이다. 91 편은 '나', '너', '그' 라는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교차되며 사용되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147. 시 92 편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에게 승리를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용 찬송시이다.
148. 시 93 편은 우주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송축한 찬양시이다.
149. 시 94 편은 악인들의 오만함을 하나님께 고하며 그들의 심판을 탄원(1-6 절)하고, 이 문제에 하나님의 무관심하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반문(7-11 절)하며, 하나님은 지금은 징벌과 교훈을 받지만 그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12-15 절), 하나님 만이 피난처가 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16-23 절) 확신을 주제로 한 시이다.
150. 시 95 편은 예배로의 첫번째 초대와 그 이유(1-5 절)와 예배로의 두번째 초대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6-11 절)로 이루어진 시이다. ⇒ 히 4:7 에 인용된 부분이 본편 7 절 마지막과 8 절 마지막 부분이라는 점에 저자가 다윗이리라는 주장도 있다. 시 95 편부터 100 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공중예배에서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진 시이다. 이 시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8 절에 언급된 므리바와 맛사는 출 17:5-7 참조.

151. 시 96 편은 온 땅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기를 요구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예배용 찬양시이다. ⇒ 이 시의 특징은 저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을 3 번씩 반복한 것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1-2 절,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7-8 절, 심판: 13 절. 96 편의 저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지은, 대상 16:8-36에 기록된, 시를 많이 인용하였다. 특히 대상 16:23-33와 시 96:2-12의 내용이 거의 같다.
152. 시 97 편은 여호와께서 우주의 통치자로 보좌에 앉아 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비출 때 우상의 허무함이 드러나고 의인들은 보호를 받으리라는 송축시이다.
153.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둘러싸여 임재하시나? 구름과 흑암 (시 97:2)
154.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 (시 97:2)
155. 시 98 편은 사람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새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는 송축시이다. ⇒ 시 96 편의 메아리라고 불려 왔는데 시로써 그 형식이 더 정교하다. 즉 모두 3 연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이가 비슷하며, 각 연은 각각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1-3 절: 찬양의 이유, 4-6 절: 찬양의 방법, 7-9 절: 찬양으로의 초대.
156. 시 99 편은 만민을 향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를 높이는 예배로의 초대를 주제로 한 찬양시이다. ⇒ 5 절에 언급된 발등상(footstool)은 발을 올려놓는 작은 상을 말한다. 땅 (사 66:1, 마 5:35), 성전 (애 2:1), 언약궤 (시 99:5)를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에 발등상으로 비유하였다. 시 99:5의 경우 언약궤를 뜻한다고 보는 이유는 1 절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약궤와 그룹에 대해서는 출 25:10-22 참조.
157. 시 100 편은 온 땅의 만민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한 감사의 시이다. ⇒ 이로써 95 편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의 절정을 이루고 끝을 맺는다. 1 절은 송영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가사의 출처이다.
158. 시 101 편은 통치자의 덕목에 관하여 다윗이 지은 왕의 시이다. 1-4 절은 통치자의 사생활과 5-8 절은 공적인 생활을 묘사했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159. 시 102 편은 부제에 있는 대로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자신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통회의 시이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였다. ⇒ 시편 중 가장 슬픈 시로 알려져 있다. 1-2 절: 서론, 3-11 절: 개인적인 고난에 대한 하소연, 12-22 절: 여호와의 은혜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위로와 확신, 23-28 절: 영존하시는 주님의 자손들은 굳게 서리라는 결론.
160. 시 103 편은 다윗의 시로 인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한 시 중에 하나이다. ⇒ 1-5 절: 다윗이 받은 은택에 대한 찬양, 6-14 절: 여호와께서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사랑의 구체적 모습들, 15-18 절: 인생은 풀과 허망하지만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19-22 절: 여호와의 지음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여호와의 찬양으로의 초대.
161. 다윗은 무엇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요구했나?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시 103:1)
162.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품성에 무엇이 많다고 하였나? 긍휼 (시 103:8)
163.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품성에 무엇을 더디 하신다고 하였나? 노하기 (시 103:8)
164.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품성에 무엇이 풍부하다고 하였나? 인자하심 (시 103:8)

165. 시 104 편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시적 감각으로 표현하고, 창조의 장엄함과 그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찬양시이다. ⇒ 창세기에 기록된 6 일간의 천지창조 과정이 같은 순서로 이 시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행구절을 볼 수가 있다. 1 절: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 2-6 절: 밤과 낮을 나누신 창조의 첫째 날과 하늘과 물을 가르신 둘째 날 (창 1:1-8), 7-18 절: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비와 시내와 강을 만드시고 풀과 채소를 창조하신 셋째 날 (창 1:9-13) 창조 다섯째 날에 만드신 동물들의 언급은 새로 창조된 환경을 돋보이게 하기위한 시적 표현, 19-23 절: 달과 해로 낮과 밤을 나누신 넷째 날 (창 1:14-19) 동물과 사람을 언급한 것은 역시 밤과 낮의 차이를 간명하게 설명한 시적 표현, 24-30 절: 바다와 하늘과 땅을 채운 모든 생물들이 창조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창 1:20-25). 31-35 절: 여호와께서 안식하신 날을 회상하며 묵상, 찬양 및 기도로 맺는 결론. 26 절에 언급된 리워야단은 노트 119 번 참조.
166. 시 105 편은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찬양한 역사시이다. ⇒ 이 시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본 시편의 1-15 절이 다윗의 찬양시 대상 16:8-36 중 8-22 절과 같기 때문이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1-7 절: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림, 8-15 절: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국가 초기와 하나님의 언약, 16-23 절: 애굽으로 들어감, 24-38 절: 출애굽, 39-45 절: 광야에서의 인도와 여러 나라의(가나안) 땅을 주심.
167. 시 106 편은 출애굽으로부터 사사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따른 징계를 돌아보며, 궁극적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역사시이다. 105 편의 후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 시 106:1 과 대상 16:34, 시 106:47-48 과 대상 16:35-36 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을 저자로 보기도 한다. 1-5 절: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기도가 곁들인 서두, 6-12 절: 애굽과 홍해에서 범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의 은혜, 13-15 절: 광야에서 다시 저지른 죄악상, 16-18 절: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 19-23 절: 금송아지 사건과 여호와의 노를 돌이킨 모세, 24-27 절: 약속의 땅에 대한 불평, 28-31 절: 브올의 바알과 연합, 32-33 절: 므리바 물 사건, 34-39 절: 가나안 정복 및 이방인을 멸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그에 따른 타락, 40-46 절: 사사시대에도 계속된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47-48 절: 여러 나라로부터 구원을 간구한 송영. 41-42 절을 바빌론 포로시대까지 확대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른 나라들의 침략으로 징계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계속되어 바빌론 포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역사는 다음과 같다.
메소보다미아 (삿 3:7-8), 모압 (삿 3:12-14), 블레셋 (삿 3:31), 가나안 (삿 4:1-3), 미디안 (삿 6:1), 블레셋과 암몬 (삿 10:7-8), 블레셋 (삿 13:1), 애굽 왕 시삭 (대하 12:2), 앗수르 왕 불과 디글랏빌레셀 (대상 5:25-26, 대하 28:19-20), 애굽 왕 느고 (대하 36:3-4),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대하 36:5-7, 9-10, 13-21).
168. 시 107 편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찬양시이다. 본 시편은 문학적 표현과 구성의 탁월함이 시편 뿐 아니라 일반 문학작품과 견주어도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이 시편의 구성은 1-3 절: 속량 받은 자들의 감사와 찬양, 4-9 절: 광야에서의 고난, 10-

16 절: 갇힌 자의 고난, 17-22 절: 아픈 자의 고난, 23-32 절: 풍랑을 만난 자의 고난, 33-42 절: 의인의 축복과 악인의 심판, 43 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주제로 삼은 4 개의 부분은 당면한 고난,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 응답, 응답하신 여호와께 찬양, 찬양의 이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부르짖음, 응답과 찬양 부분이 2 중 후렴형식으로 재난에 따라 다른 응답을 기술하고 있다.



169. 시 108 편은 다윗이 지은 환희에 찬 민족적 찬양시이다. 1-5 절: 찬양의 영성, 6-12 절: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받은 구원, 13 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각오. ⇒ 1-5 절은 시 57:7-11 (노트 99 번), 6-13 절은 시 60:5-12(노트 102 번)와 같다.
170. 시 109 편은 다윗이 겪은 배반과 고통을 호소하고 그들의 심판을 간구한 대표적인 예언적 요소가 있는 저주의 시이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라고 부제에 있는데 이렇게 원색적인 저주를 회당에서 다 함께 하였다는 것이 의아하다. 구약시대의 '눈에는 눈으로'(신 19:21)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나? ⇒ 1-5 절: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호소, 6-20 절: 원수들에 대한 구체적 징벌 요청, 21-31: 기도와 찬양.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 중 행 1:20 에 시 69:25 과 본 시편의 8 절이 인용되었다.
171. 시 110 편은 그리스도 주께서 권능의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임을 예언한 다윗의 메시야 시이다. ⇒ 이 시의 중심은 주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언한 4 절이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다윗의 예언으로 본 시편의 1 절을 마 20:44 에서 인용하셨다. 1 절에 언급된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왕이 패한 나라의 왕의 머리나 목을 밟는 의식(수 10:24)에 연유하여 원수들의 철저한 패배를 뜻한다. 발등상에 대해서는 노트 156 번 참조.
172. 시 111 편은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한 시이다. ⇒ 답관체 형태로, 1-8 절까지는 각 절이 2 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행은 자음 순서로 시작하고, 9-10 절에는 3 행으로 자음 3 자씩 포함되어 자음 22 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173. 시 112 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과 대적들의 종말을 경고한 지혜시이다. 111 편과 함께 쌍둥이로 불리는데 두 시편의 구성과 형식이 같기 때문이다. 111 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112 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 답관체로 구성이 111 편과 같다.
174. 시 113 편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1-5 절), 그리고 자비하심(6-9 절)을 찬양한 시이다. ⇒ 시 113-118 편은 유월절에 불렀기 때문에 '애굽의 할렐 (Egypt Hallel)' 또는 줄여서 할렐 시편이라 부른다. 114 편과 함께 유월절 만찬 전에 불렀고 115-118 편은 만찬 후에 불렀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후에 부른 찬미(마 26:30, 막 14:26)가 바로 본 시편이었다고 해석한다.
175. 시 114 편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시이다. 이 시는 여호와 앞에서 벌어진 자연(산, 바다, 강, 땅)의 현상을 양의 뛰는 모습과 의인화하여 생생하게 표현하여 주목을 받는다.
176. 시 115 편의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궁국적인 선하심을 찬양한 시이다. 1-2 절: 여호와께 만 영광을 돌리는 정당성, 3-8 절: 사람이 만든 우상과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9-15 절: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누리는 복의 관계, 16-18 절: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라.
177. 시 116 편은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한 시이다. 1-8 절: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기에 평생 기도해야 함, 9-13 절: 하나님과 성스러운 대화가 필요한 이유, 14-19 절: 환란 가운데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리라는 다짐.
178. 시 117 편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초대한 시이다. ⇒ 성경 중 가장 짧은 장이며 2 절로 이루어져 있다.
179. 시 118 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5 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동지(7-9 절)와 적(10-11 절)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였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기고(12-14 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한 찬양시이다. ⇒ 저자가 다윗 또는 바빌론 포로귀환 시점의 지도자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 시편에 언급된 일연의 사건들이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1-4 절: 영원히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5-18 절: 저자인 지도자가 겪은 고통과 그런 중에도 여호와를 신뢰한 고백, 19-21 절: 성전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 22-27 절: 제사장과 백성들이 지도자를 축복하며 제단에 제물을 바칠 것을 요청, 28-29 절: 지도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118 편으로 113 편에서 시작된 할렐 시편이 끝을 맺었다.
180. 시 119 편은 여호와의 말씀 즉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주제로 쓰여진 시이다. 이 시의 전체를 통해 율법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 증거, 도, 법도, 율례, 말씀 등등. 이 시편은, 8 절씩으로 단락을 지어, 영적으로 어린이와 같이 시작하지만 점점 성숙하고 깊이 있는 고백으로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 시는 176 절로 성경 중 가장 길고 답관체로 구성되어 있다. 8 절씩으로 끓어 같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되기를 순서대로 22 번 반복하여 총 176 절이 되었다. 즉 1-8 절은 각 절이 Alef 로, 9-16 절은 Bet 으로 시작하는 식이다.
181. 청년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나? 주의 말씀만 지킴으로 (시 119:9)

182.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무엇을 하였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시 119:11)
183. 시인은 무엇을 하기위해서 눈을 열어 달라고 간구하였나?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위해서 (시 119:18)
184. 20 절에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라는 표현은 NIV: My soul is consumed, KJV: My soul breaketh. 즉 주의 규례를 사모하기에 영혼이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185. 고관들이 자신을 비방하였을 때 시인은 무엇을 하였나?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시 119:23)
186. 주께서 어떻게 하시면 시인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했나? 내 마음을 넓히시면 (시 119:32)
187. 시인은 무엇이 유익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나? 고난당한 것 (시 119:71)
188. 83 절에 언급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가죽으로 포도주 부대를 만들 때 연기로 처리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죽 부대가 연기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습기를 잃고 말라서 쪼그라들고 탄력을 잃어 쓸모가 없어진다. 시인이 겪고 있는 연단의 과정 또는 어려운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였고 그런 가운데에도 율례를 잊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189.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떻다고 하였나? 꿀보다 더 달다 (시 119:103)
190. 시인은 주의 말씀이 자신의 발에 무엇이라고 하였나? 등 (시 119:105)
191. 시인은 주의 말씀이 자신의 길에 무엇이라고 하였나? 빛 (시 119:105)
192. 시인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무엇이라고 하였나? 진리 (시 119:160)
193. 시인은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어떠하리라 하였나? 영원하리이다 (시 119:160)
194.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으리라고 하였나?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 119:165)
195. 시 120 편은 이방에서 화를 당한(5 절) 시인이 구원을 간구하는 시이다. ⇒ 120 편부터 134 편까지의 부제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며 '순례의 시편'이라고 불린다. 이 시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들이며 편수가 올라감에 따라 영적인 충만함이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절에 기록된 메섹(겔 27:13, 38:3, 39:1 –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의 족속)과 게달(창 25:13, 아 1:5 –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민)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된 연유가 불분명하다. 척박하고 적대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마리아와 암몬을 뜻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6. 시 121 편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한 아름다운 시이다. ⇒ 이 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명제로 시작하여 그 답을 단계 별로 향상시키는 식으로 전개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키다(keep)는 단어가 사용되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의 시 (a Psalm to the Keeper of Israel)'라는 별명이 붙었다. 순례의 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전장에 나간 병사의 시 또는 타국에서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의 시로도 볼 수도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다.
197.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시인은 고백했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시 121:2)

198.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무엇을 아니하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시 121:4)
199.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어디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 네 오른쪽 (시 121:5)
200. 시 122 편은 예루살렘 성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간 순례자들이 그 곳에 평안과 협통함이 있기를 기원하는, 다윗이 지은 순례의 시이다.
201. 시 123 편은 멸시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히 바라는 호소의 시이다.
202. 시 124 편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이스라엘이 민족적 위기에 처해있을 때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양이다.
203. 시 125 편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둘러 보호하심을 찬양하였다.
⇒ 3 절에 나온 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이나 금으로 만든 노리개나 지팡이를 뜻한다.
에스더 노트 47 번 참조.
204. 시 126 편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돌려보내신 일을 찬양하고 있다. ⇒ 본 시편에 언급된 포로가 바벨론 포로생활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후자의 경우 1 절에 '시온'이라는 표현 즉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거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포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드리워졌을 때 이를 포로로 비유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205. 시 127 편은 사람이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헛된 일이 될 뿐이라는 교훈을 담은 시이다.
206.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 잠 (시 127:2) ⇒ 노심초사하며 삶에 얹매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잠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한다.
207.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은 무엇인가? 자식 (시 127:3) ⇒ 태의 열매도 자식을 뜻한다.
208. 젊은 자의 자식은 무엇과 같다고 하였나? 장사의 수중의 화살 (시 127:4) ⇒ 장사가 화살을 공격과 방어에 사용하듯 자식은 노년의 부모를 보호하는 힘이 된다는 의미.
209. 시 128 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으리라는 시이다.
210. 아내와 자식들을 무엇에 비유하였나?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람나무 (시 128:3)
211. 시 129 편은 이스라엘을 일찍부터 반복하여 괴롭혔던 대적들을 심판하신 여호와를 찬양한 시이다. 심판받은 대적들은 여물기 전에 말라버린 풀과 같아서 알곡 없는 쪽정이로 추수하는 자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
212. 시 130 편은 고난 가운데 절망한 시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용서를 구한 시이다.
213.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기다림이 무엇보다 더 하다고 고백하였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보다 (시 130: 6)
214. 시 131 편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듯 여호와를 신뢰할 때 받는 평온함을 노래한 시이다.
215. 시 132 편은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옮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한 시이다. 1-7 절: 성막 짓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다윗, 8-10 절: 언약궤의 성막으로 이동, 11-18 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 6 절에 언급된 '그것이'는 언약궤를 지칭한다. '에브라다'는 예루살렘 남쪽과 서쪽 지역의 이름으로 베들레헴과 기럇여아림이 위치해 있다. '나무 밭'은 KJV – fields of

wood, NIV – fields of Jaar 로 되어 있다. Jaar 은 히브리어로 숲풀이라는 뜻이 있고 또한 기럇여아림(Kirjath-jearim)의 약자로 그를 가리키는 시적 표현으로 쓰였다. KJV 는 히브리어를 번역하였고 NIV 는 고유명사로 취급하였다. 6 절은 블레셋이 돌려보낸 언약궤가 기럇여아림에 20 년간 있었던 일(삼상 6:21-7:2)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16. 시 133 편은 형제가 연합함에 따른 아름다움과 그로인한 여호와의 축복 곧 영생을 찬양한 다윗의 시이다.
217. 시 134 편은 120 편으로부터 시작된 순례의 시의 마지막으로,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촉구하고 있다.
218. 시 135 편은 선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면(1-14 절)과 우상의 무력함을 들어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강조한(15-21 절) 찬양의 시이다. ⇒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3 절: 선하심, 4 절: 이스라엘을 택하심, 5-7 절: 위대하심, 8-12 절: 대적들을 정죄하심, 13 절: 변하지 않고 영원하심, 14 절: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 또한 135 편은 다른 시편 및 성경 구절들의 뜻이 많이 인용되어 모자이크 시편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1-2 절 = 시 134:1-3, 2-3 절 = 시 116:19, 4 절 = 신 7:6, 5 절 = 시 95:3, 7 절 = 렘 10:13, 8 절 = 시 136:10, 9 절 = 시 136:11-15, 10-11 절 = 시 136:17-20, 12 절 = 시 136:21-22, 13 절 = 출 3:15, 14 절 = 신 32:36, 15-21 절 = 시 115:4-11.
219. 시 136 편은 창조를 비롯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시이다. ⇒ 각 절에서 찬양해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끝을 맺고 있다. 1-3 절: 3 중 찬양, 4-9 절: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 10-15 절: 출애굽을 도우신 여호와께 찬양, 16-22 절: 광야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여호와께 찬양, 23-26 절: 계속되는 은혜에 감사 찬양.
220. 시 137 편은 바벨론 포로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에 따른 울분을 표현한 시이다. 포로의 노래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221. 시 138 편은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신 주께 감사하며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다윗의 감사의 시이다.
222. 시 139 편은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한 다윗의 시이다. ⇒ 본 시편은 6 절로 이루어진 4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절: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7-12 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13-18 절: 기묘하고 전능하신 주를 향한 다윗의 고백, 19-24 절: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간구.
223. 시 140 편은 악인으로부터의 구원과 그들의 심판을 간구한 다윗의 시이다.
224. 시 141 편은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께 간구한 다윗의 기도이다. ⇒ 이 시편의 배경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엔게디 광야 굴(삼상 24:1-7) 또는 십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친 진(삼상 26:1-12)에서의 일이라는 해석도 있다. 5 절에 언급된 '머리의 기름'은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마 26:7, 막 14:3) 관습을 비유로 의인의 책망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25. 시 142 편은 피할 곳 없는 궁지에 몰린 다윗이 여호와의 도움을 부르짖어 구한 시이다. 부제에

언급된 굴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둘람(삼상 22:1), 엔게디(삼상 24:1-3) 또는 알려지지 않은 굴일 수도 있다.

226. 시 143 편은 원수의 팝박으로 환난에 처한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 시이다. ⇒ 전통적으로 통회의 시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원수들에 대한 분노(3-4 절)와 자신의 진실함을 해명하고(5-12 절) 있다. 2 절에 나타나 있듯이 다윗은 자신을 주님 앞에서 어떤 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며 또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구구절절이 나타나 있다.
227. 시 144 편은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해 복받은 백성들과 함께 감사와 경축을 노래한 다윗의 시이다.
228. 시 145 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1-7 절), 선하심(8-10 절), 주의 나라의 영원함(11-13 절), 인간을 보살피심(14-16 절)과 의로우심(17-21 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시이다. ⇒ 145 편은 담관체로 각 절이 Nun 을 제외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작한다.
229. 다윗은 무엇을 영원히 송축하리라 했나? 주의 이름 (시 145:1)
230. 여호와는 무엇이 많으시다고 다윗은 고백하였나? 글臺 (시 145:8)
231. 여호와는 무엇을 더디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였나? 노하기를 (시 145:8)
232. 여호와는 무엇이 크시다고 다윗은 고백하였나? 인자하심 (시 145:8)
233. 여호와는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였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시 145:18)
234. 시 146 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의 복됨(1-5 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시이다. ⇒ 146 편부터 150 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기에 할렐루야 시편이라 불린다.
235. 시 147 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이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분은 찬양을 하라는 촉구(1, 7, 12 절)로 시작한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상한자들을 고치신 하나님(1-6 절),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7-11 절), 자연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신(12-20 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236. 시 148 편은 우주와 자연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37. 시 149 편은 백성들 모두가 새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한 시이다.
238. 시 150 편은 송영에 해당되며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왜 어떻게 찬양할지를 천명하고 있다.